

袁台子墓 벽화 주인공 복식에 관한 연구

- 고구려 복식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정 완 진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A Study on the Costumes of the Master Appeared in Yuantaizi(袁台子) Tumulus Murals

- Focused on relation to the Costumes of Koguryo(高句麗) -

Wan-Jin Jung

Graduate student,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1. 6. 5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stumes of the master in Yuantaizi(袁台子) tumulus murals and to examine the relation to the costumes of Koguryo(高句麗).

The Master appeared in Yuantaizi Tumulus Murals wear Wuguan(武冠), Pingshangze(平上幘) and Pao(袍). These costumes were used as chaofu(朝服) by Han race(漢族) at that time. It is believed that Yuantaizi tumulus belongs to a tomb of Qian Yan(前燕). So we can conclude that Qian Yan accepted costume systems of Han race. And similar costumes appear in Tumulus Murals of Koguryo built around Pyungyang(平壤) and Anak(安岳) in 4~5 century. Especially the master's costumes of Anak Tomb No.3(安岳3號墳) are nearly the same as Yuantaizi's. Maybe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master of Anak Tomb No.3 is Dongsu(冬壽) who defected from Qian Yan.

Key Words : Yuantaizi(원대자), mural(벽화), Wuguan(무관), chaofu(조복), Koguryo(고구려),
Anak Tomb No.3(안악3호분)

I. 서 론

본 연구는 1982년 중국 遼寧省 朝陽縣 十二台營子鄉 袁台子村에서 발견된 벽화묘¹⁾(이하에서는 원대자묘로 칭함)에 보이는 주인공의 복식을 고찰한 것이다.

원대자묘의 축조연대는 4세기 경으로 추정되고 있는데²⁾ 이 시기는 중국역사상 '東晉·16국 시대'로 불리우는 시기로, 원대자묘가 발견된 조양지방은 당시 호족 국가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에 속한다. 이 묘의 부장품 중에는 선비계 문물이 농후하게 포함되어 있어서³⁾ 5호 16국 가운데 선비계 국가 지배층

의 묘로 추정되고 있다.

원대자묘에는 묘주, 문지기, 시녀, 奉食, 牛耕, 정원, 도살, 주방, 수렵, 출행, 무사, 四神, 日月星雲 등 다양한 채색벽화가 그려져 있는데⁴⁾, 벽화의 내용과 구도에 있어 고구려 고분벽화와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안악 3호분, 무용총과의 관련성이 지적되고 있다.⁵⁾ 그런데 벽화 내용과 구도 뿐만 아니라 복식에 있어서도 고구려 벽화 복식과 유사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묘주상의 경우 안악3호분을 위시한 4~5세기 평양·안악지역 고구려 벽화와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 관모를 중심으로 이러한 공통점을 지적한 선행연구가 있으니⁶⁾, 원대자묘 주인공과 고구려 고분벽화 일부 주인공 사이에는 관모 뿐만 아니라 복식 전반에 있어 상당한 유사성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대자묘 주인공 복식을 1차자료로 하여 관련 문헌 및 고구려 벽화를 포함한 관련 고고학적 자료를 분석하여 첫째, 원대자묘 주인공 복식의 형태, 명칭 및 등장 배경을 규명하고 둘째, 원대자묘 주인공 복식과 고구려 벽화 복식의 유사성의 정도 및 배경, 이것이 고구려 복식사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중국복식사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5호 16국시대 복식에 관한 연구성과를 축적하는 한편, 한국복식사적 입장에서는 고구려 복식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II. 원대자묘 주인공 복식 분석

원대자묘의 주인공은 前室 오른쪽 龕에 그려져 있다. 묘주는 휘장 아래의 네모난 평상 위에 앉아 있는데 타원형 얼굴에 짙은 눈썹, 높은 코, 붉은 입술, 큰 귀가 늘어져 있고 입술 위로 수염이 보인다. 오른손에 麈尾를 들고 있으며 왼손은 가슴 앞에 두었다. 뒤에는 시녀가 세 사람 서 있는데 화면 상태가 좋지 않아 머리부분만 보이고 있다.⁷⁾(그림1)

묘주는 관모를 쓰고 袍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모와 포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관 모

묘주에서 주인공이 쓰고 있는 관모에 관해 보고서에는 黑冠이라고 되어 있다.⁸⁾ 그러나 모사도를 보면 검은색 관모 위에 투명한 덧관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幘 위에 武冠을 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그림 1> 원대자묘 묘주상
(『文物』 84년 6기, 도판5-2)

무관에 관한 자료는 중국측 자료가 대부분이므로 이하에서는 원대자묘의 축조시기에 해당하는 진대까지의 문헌자료⁹⁾ 및 출토유물, 화상석, 벽화, 도용 등의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무관의 명칭, 소재, 형태, 착용계층에 관해 고찰하고 그것을 원대자묘 주인공의 관모에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무관은 시대에 따라 惠文冠, 武弁大冠, 武弁, 武弁冠, 大冠, 繁冠, 建冠, 籠冠과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웠는데¹⁰⁾ 이 중 몇가지 명칭은 무관의 소재와 형태를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무관의 소재에 관해 『진서』여복지에 “武冠은 (중략) 옛날의 惠文冠¹¹⁾이다. 후자는 조 혜문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었다고 하고, 또 惠는 螭를 말하는 것으로 冠의 문양이 輕細하여 매미날개(蟬翼)와 같

아 惠文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도 한다.”¹²⁾고 있어 무관이 매미날개처럼 얇고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惠’字를 ‘總’字와 연결시키면서 무관의 소재로 가늘고 성긴 總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¹³⁾ 長沙 馬王堆 3호 西漢墓¹⁴⁾와 武威 磨咀子 62호 漢墓¹⁵⁾에서 출토된 무관은 성긴 漆紗로 제작되어 있어 이러한 추정들을 뒷받침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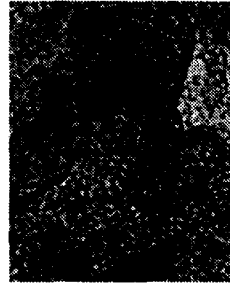
한편 무관의 형태에 관해서는 武弁大冠이나 武弁이라는 명칭에 ‘弁’字가 보이기 때문에 무관의 제도가 弁形과 유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무관의 초기적 형태였을 것이고, 『진서』에 籠冠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무관은 ‘籠’ 즉 ‘바구니나 상자’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고학적 자료로 볼 때 이미 前漢代에는 網狀 大冠의 형태로 정형화된 것으로 보인다.¹⁶⁾

이상을 근거로 무관은 얇고 성긴 소재로 만든 커다란 상자모양의 관모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화상석이나 벽화를 보면 대부분 무관 아래에 다른 관모를 하나 더 착용하고 있다. 『후한서』 여복지에는 『獨斷』을 인용하여 “진현관을 쓰는 자는 長耳의 幘을 착용하고 혜문관을 쓰는 자는 短耳의 幘을 착용한다”¹⁷⁾고 기록하고 있는데, 『독단』의 저자인 蔡邕(132-192)은 후한 사람이므로 後漢代에는 무관과 책을 병용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한서』 禮儀志 大喪條에 “武吏는 布幘과 大冠을 쓴다”는 기록¹⁸⁾ 또한 책과 무관의 병용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그런데 벽화상으로는 前漢시기 자료에 무관을 책 위에 착용한 모습이 보이므로 前漢代에 이미 무관과 책을 병용했다고 볼 수 있다.²⁰⁾ 한편 『진서』와 『송서』에 “진현관을 쓰는 사람은 長耳의 幘을 쓰는데 이는 지금의 介幘이고, 혜문관을 쓰는 사람은 短耳의 책을 쓰는데 이는 지금의 平上幘이다.”²¹⁾라는 기록과, 천자를 비롯한 여러 장군의 복식으로 ‘武冠, 平上幘’ 혹은 ‘武冠, 平上黑幘’이라는 기록이 보여서²²⁾, 늦어도 진대에는 무관과 함께 착용하는 책에 ‘平上(黑)幘’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송서』 樂志에는 魏 明帝 太和(227-232) 初 기록에 武始舞를 추는 사람의 관모로 ‘武冠, 赤

介幘²³⁾이 보이는데 개책은 진현관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책의 색도 평상책과 마찬가지로 흑색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적개책을 무관과 병용하는 것은 무용인의 독특한 착장법으로 볼 수 있겠다.

평상책의 형태에 관해서는 여러 사서에 短耳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진현관과 병용하는 長耳의 책에 비해 耳가 짧았음을 알 수 있다. 회화자료를 보면 무관과 함께 착용한 책은 뒷부분이 무관에 가려 정확한 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고구려 수산리고분 벽화 현실 서벽 행렬도 주인공 무관의 경우, 무관 밑으로 앞보다 뒤가 조금 솟은 책의 모습이 보인다.(그림2) 이것이 바로 무관 아래에 쓰는 평상책일 것으로 생각된다. 원대 자료 奉食圖 중의 제일 앞 사람도 이런 책을 쓰고 있다.(그림3)



<그림 2> 수산리고분 책과 무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1, 194쪽)



<그림 3> 원대자료 봉식도 책
(『文物』 84년 6기, 도판6-2)

무관과 함께 착용하는 책의 색상을 살펴보면 한대의 자료에는 붉은색도 보이지만²⁴⁾ 진대에는 검은

색이 일반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진서』에는 무관과 병용하는 책으로 평상책과 평상흑책이라는 명칭이 보이는데 이 두가지는 동일한 관모로 생각되므로²⁵⁾ 평상책은 검은색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송서』에는 송 황제의 鼓吹樂隊의 복식으로 '흑책, 무관'이 제시되고 있어서²⁶⁾ 진대 이후 무관과 함께 착용하는 책은 검은색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무관의 착용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대부터 진대까지의 문헌기록을 검토해 보면 <표 1>과 같다. 이를 보면 무관 착용자는 여러 武官, 환

관, 각지에 봉해진 왕, 흉노 선우, 천자, 鼓吹와 관련된 자로 대별된다. 이 중 武官의 경우 『후한서』, 『진서』에는 '諸 武官,' '諸 將軍'이라는 다소 모호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부 장군(『진서』의 경우 1품~3품 장군)이 착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송서』의 기록은 보다 자세해서 무관 착용자를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大司馬, 大將軍, 太尉 등의 1품 장군으로부터 平虜武猛中郎將, 別部司馬 등의 9품 武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武官層이 포함되어 있어서²⁷⁾ 武冠이 武官의 대표적인 관모임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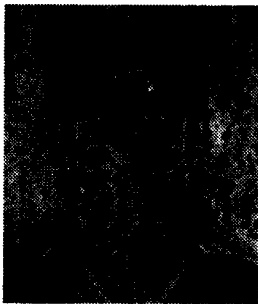
<표 1> 무관 착용자 (한서, 후한서, 동관한기, 진서, 송서에 의함)

출 전	착 용 자	기 타	세 부 출 전
한서	昌邑王	元康 4년(BC 62)	권63, 武五子傳 제33
후한서	諸 武官		志 제30, 與服 下
	장군(후한 광무제가 건국전 착용)		권1上, 光武帝紀 제1上
	武吏(大喪 時)		志 제6, 禮儀 下
	侍中, 中常侍	黃金璫, 蟬, 貂尾장식 趙惠文冠	志 제30, 與服 下
匈奴 單于	광무제가 혜문관 하사	志 제30, 與服 下	
東觀漢記	段熲	赤幘大冠 一具 하사	권 제17, 傳12
진서	諸 將軍, 武官		권25, 志제15, 輿服
	大司馬, 大將軍, 太尉, 驃騎·車騎·衛將軍, 諸大將軍, 開府位從公者爲武官公		권24, 志제14, 職官
	三品將軍 秩中二千石者		권24, 志제14, 職官
	左右侍臣		권25, 志제15, 輿服
	侍中, 常侍	金璫, 蟬, 貂毛 장식	권25, 志제15, 輿服
	天子(元服, 雜服)		권25, 志제15, 輿服
송서	1~9품까지의 무관	小林聰(1993), <표2>참조	권18, 志제8, 禮5
	侍中, 散騎常侍, 中常侍	貂蟬장식(侍中은 왼쪽, 常侍는 오른쪽)	권18, 志제8, 禮5
	給事中, 黃門侍郎, 散騎侍郎, 太子中庶子, 太子庶子, 小黃門 등		권18, 志제8, 禮5
	安平王	晉 武帝 泰始 3년(267)에 侍中 복식 하사	권18, 志제8, 禮5
	趙王, 樂安王, 燕王	泰始 4년(268)에 散騎常侍 복식 하사	권18, 志제8, 禮5
	天子(雜服)		권18, 志제8, 禮5
	總章監鼓吹監司律司馬, 鼓吹監總章協律司馬, 黃門鼓吹, 黃門鼓吹史主事, 諸官鼓吹, 宋乘輿鼓吹		권18, 志제8, 禮5

武冠의 또 다른 착용계층으로 환관이 보이는데, 환관 중에서도 侍中, 中常侍, 散騎常侍²⁸⁾는 貂蟬 장식을 한 무관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황제를 가까이 모시는 近臣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²⁹⁾ 이에 비해 환관 가운데서도 지위가 낮은 給事中, 黃門侍郎, 散騎侍郎, 太子中庶子, 太子庶子, 小黃門 등은 초선 장식을 하지 않은 무관을 썼다.³⁰⁾

한편 시중이나 상시 외에도 초선 장식을 한 무관의 착용자가 보인다. 昌邑王이 혜문관을 착용했다는 『한서』의 기록, 安平王, 趙王, 樂安王, 燕王에게 시중이나 산기상시의 복식을 하사했다는 『송서』의 기록, 광무제가 흉노 선우에게 혜문관을 하사했다는 『후한서』의 기록을 통해, 중국 각지에 봉해진 왕이나 주변민족의 수장에게 초선 장식을 한 무관을 사여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¹⁾ 여기에는 시중이나 상시처럼 황제를 잘 받들어 모시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또한 『진서』와 『송서』를 보면 황제도 무관을 착용했다고 하는데 元服 착용시 제일 먼저 무관을 썼고, 雜服의 하나로 무관을 착용했다. 이밖에 『송서』 기록을 보면 고취를 담당하는 관리나 고취악대가 무관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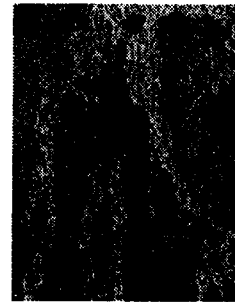


<그림 4-①> 안악3호분 무관 정면상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1, 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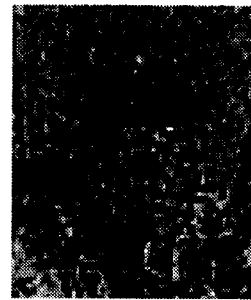
孔錫龜는 진대까지의 중국의 화상석·벽화와 고구려벽화를 검토한 결과 武冠은 대체로 무관계층과 고취악대들이 착용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³²⁾ 이는 이상의 문헌고찰 결과와도 부합된다.

다음은 이상의 고찰결과를 가지고 원대자묘 주인공의 관모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무관은 책의 후반부를 덮는 커다란 상자모양으로 묘

사되어 있으며 이러한 형태 특성을 잘 보여주기 위해 측면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원대자묘 주인공은 정면상으로 표현되어 있어 덧관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대자묘 주인공과 거의 유사하게 표현된 안악3호분 주인공의 경우 정면상 뿐만 아니라 측면상이 보이는데, 이것을 보면 덧관이 책의 후반부를 덮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서 원대자묘 주인공의 덧관도 같은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4-①,②)



<그림 4-②> 안악3호분 무관 측면상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1, 53쪽)



<그림 5> 安平 東漢 遼家莊墓무관
(『河北古代墓葬壁畫』, 도판23)

한편 회화자료에 보이는 무관은 얇고 성긴 소재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격자선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림5>에 보이듯이 격자선이 표현되지 않은 예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원대자묘 주인공 관모에 격자선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원대자묘에서 덧관이 투명하게 표현된 것은 비치는 얇은 소재를 표현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일 것으로 추정되며 관모의 색이 흰색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원대자료 주인공의 관모는 무관으로 볼 수 있으며 안악3호분 주인공의 관모 또한 무관이라고 생각된다.

명칭에 관해서는 진대 기록을 보면 武冠을 지칭하는 여러가지 별칭이 보이지만³³⁾ 武冠이 표제어로 등장하며, 『송서』 인수관복규정에도 武冠이라는 명칭만 보여서 당시 널리 통용된 명칭은 武冠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武冠'이라 부르기로 한다. 밑에 쓴 검은 관모는 武冠 아래에 쓰는 平上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대자료 주인공은 무관 착용계층 가운데 천자, 왕, 흉노 선우, 고취약대는 아닌 것이 확실하고 무관에 초선장식이 없으므로 시중, 상시 등의 近臣도 아니며, 고분의 규모나 성격 등으로 볼 때 하급 환관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武官계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서열에 따라 梁數에 구별을 둔 진현관과는 달리 武冠은 1~9품까지 구별이 없었으므로 착용자의 관품을 추정할 수는 없다.

2. 포

원대자료 주인공이 착용하고 있는 의복에 대해 보고서에는 黑領, 廣袖의 右衽紅袍를 입었다고 되어 있다.³⁴⁾ 박락이 심해 묘사도 상으로는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보고서의 기록에 의거해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주인공의 포가 무관과 일습으로 착용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무관과 함께 착용하는 복식에 관해 진대까지의 문헌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를 보면 무관과 함께 착용한 의복은 短衣大袴, 絳衣, 朱衣, 朝服, 單衣(禪衣), 褙, 錦文衣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短衣大袴의 경우 『한서』에 昌邑王의 복식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短衣는 저고리 혹은 길이가 짧은 포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저고리로 볼 경우 <표 2>에 보이는 다른 복식이 모두 袍類인데 비해 襦袴차림으로 볼 수 있어서 주목된다. 그런데 벽화나 화상석에 보이는 무관 착용자의는 포 차림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하급무관이나 고취약대 가운데는 襦袴 차림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³⁵⁾ 무관과

襦袴의 조합이 이상하지는 않다. 다만 玉環, 筆, 牘을 소지한 모습이나, 창읍왕이라는 지위로 볼 때 긴 袍를 착용하는 것이 격에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사 뒷부분에 창읍왕이 의복, 언어, 행동으로 볼 때 약간 백치같다는 내용³⁶⁾이 있는 것으로 봐서도 적절한 차림새는 아니었던 것 같다.

다음으로 絳衣에 관해서는 광무제가 후한을 건국하기 전 왕망에 대항하여 군대를 일으킬 당시 착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후한서』 注에 『東觀記』를 인용하여 “황제(광무제)가 때때로 絳衣大冠을 착용했는데 장군복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당시 장군의 복장임을 알 수 있다.

또 朱衣에 관해서는 『삼국지』에서 『抱朴子』를 인용하여 吳 景帝(258-263)때 廣陵에서 발굴된 銅俑이 大冠朱衣를 입고 검을 들고 靈座를 지키고 있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武冠, 朱衣가 당시 무관의 복식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복의 경우, 무관과 함께 착용한다는 기록을 『후한서』에서부터 볼 수 있는데³⁷⁾ 여기에는 단순히 조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진서』, 『송서』를 보면 조복이 여러 종류로 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小林聰은 후한 말부터 祭服用 五時的 袍가 조복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魏代에는 五時朝服, 四時朝服, 朝服이라는 3단계의 조복제도가 완성되어 있었으며, 서진시대에는 여기에 조정에서의 지급 有無에 의한 구별이 더해졌다고 보고 있다.³⁸⁾ <표 2>에 보이는 (給)五時朝服, (給)四時朝服, 朝服이 바로 서진시대에 완성된 조복제도라고 볼 수 있다.³⁹⁾ 이들 조복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송서』의 기록을 참고하면 조복 일습에는 冠, 幘, 袍, 單衣, 中衣⁴⁰⁾, 革帶, 袷袴, 烏, 袜, 簪導가 포함된다. 또 3단계 조복에는 포의 색에 차이가 있는데 朝服은 絳緋袍이고 四時朝服은 여기에 黃緋, 靑緋, 阜緋의 袍와 單衣를 더하며, 五時朝服은 白絹의 袍와 單衣가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⁴¹⁾ 한편 조복 착용시 印, 綬, 佩玉을 패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⁴²⁾ 인, 수, 패옥은 조복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표 2>를 보면 이러한 3단계의 조복을 1품~9품까지의 대다수 武官과 환관이 착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표

<표 2> 무관과 함께 착용하는 복식 (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서, 송서에 의함)

출 전	작 용 자	의 복	佩玉,印,綬 등	참 고 사 항	세 부 출 전	
한서	昌邑王	短衣, 大袴	佩玉環 簪筆 持牘	BC 62년	권63, 武五子傳 제33	
	蓋寬饒	禪衣(단의를 잘라 땅에 닿지 않게 함)		宣 帝 시 기 (BC73-49)	권77, 蓋諸葛劉鄧孫母將何傳 제47	
후한서	광무제 (후한 건국전)	絳衣		東觀記曰 ‘上時絳衣大冠 將軍服也’	권1上, 光武帝紀 제1-上	
		朝服			志제30, 與服 下	
삼국지	銅俑	朱衣		吳 景帝(258-263)시기	吳書 권48 오서3 三嗣主傳 제3	
진서	三品將軍秩中二千石者	五時朝服	佩水蒼玉		권24, 志제14, 職官	
송서	*1품~4품 무관 侍中,散騎常侍,中常侍 給事中 등 5품 환관	給五時朝服	印,綬,(佩玉)		권18, 志제8, 禮5	
	*5품~6품 무관	五時朝服	印, 綬		권18, 志제8, 禮5	
	*5품~6품 무관 小黃門 등의 환관	給四時朝服	(印, 綬)		권18, 志제8, 禮5	
	*7품 무관	四時朝服	印, 綬		권18, 志제8, 禮5	
	*5품~9품 무관	朝服	(印, 綬)		권18, 志제8, 禮5	
	武始舞를 추는 사람	生絳袍, 單衣絳領袖, 阜領袖中衣, 虎文畫合幅袴, 白布絺, 黑韋鞮			魏 明帝 太和 (227-232)初	권19, 志제9, 樂1
	宮內游徼, 宮內亭長	阜零辟朝服			권18, 志제8, 禮5	
	中黃門黃門諸署從官寺人	給四時單衣			권18, 志제8, 禮5	
	守陵虎賁	給絳科單衣			권18, 志제8, 禮5	
	殿中穴從虎賁 등	絳科單衣	假綬		권18, 志제8, 禮5	
	長郎壯士	絳黻單衣			在陸列及鹵簿時	권18, 志제8, 禮5
	黃門鼓吹 등	給絳褙	(假綬)		권18, 志제8, 禮5	
	南書門下虎賁羽林騎 등	絳褙			권18, 志제8, 禮5	
	갈관 虎賁中郎將,羽林監,節騎郎 착용자 陸下甲僕射主事吏將騎,廷上五牛旗假使虎賁,五騎虎賁	絳紗黻單衣 錦文衣	(假印, 綬)		在陸列及備鹵簿時	권18, 志제8, 禮5

☞ 佩玉, 印, 綬에서 ()는 ()안의 품목을 가진 관직과 갖지 않은 관직이 혼재함을 의미한다.

2)에서 *표한 부분은 관품을 알 수 있는 관직만을 대상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송서』 기록 가운데 빠진 관직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대강의 경향

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밖에 阜零辟朝服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착용자로 宮內游徼, 宮內亭長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2>에서 武始舞를 추는 사람이 착용한다는 生絳袍, 單衣絳領袖, 阜領袖中衣, 虎文畫合幅袴, 白布絺, 黑韋鞬는 조복의 기본 구성인 '포, 단의, 중의'를 갖고 있으므로 조복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다.⁴³⁾

다음으로 武冠과 함께 착용하는 복식으로 禪衣, 給四時單衣, (給)絳科單衣, 絳縠單衣, 絳紗縠單衣와 같은 각종 單衣類가 보인다. 單衣는 '禪衣'라고도 하는 것으로⁴⁴⁾ 문자 그대로 안감 없이 홀로 된 袍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⁴⁵⁾ 형태는 심의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서』에 보면 "단의는 옛날의 심의이다. 지금(송서 편찬시기인 齊) 단의는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마름질하여 제작하는데 다만 緇帶에만 차이가 있다"⁴⁶⁾고 되어 있고, 『急就篇』 顏師古 注에는 "단의는 심의와 유사하나 넓고 크다"⁴⁷⁾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단의를 심의와는 달리 衣와 裳의 구별 없이 하나로 이어진 포로 보기도 한다.⁴⁸⁾ <표 2>에 보이는 단의는 주로 『송서』에 기록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송서』의 견해를 따라 심의형의 포로 보고자 한다. 그런데 후한 이래 조복의 中衣로 사용되던 단의가 언제부터 武官의 겹옷으로 사용되었을까? 『후한서』를 보면 五官, 左右虎賁, 羽林, 五中郎將, 羽林左右監, 虎賁武騎 등이 鷩尾를 꽂은 武冠 즉 鷩冠에 紗縠單衣, 虎文單衣를 착용했다고 되어 있으므로⁴⁹⁾ 후한대부터 일부 무관계층에서 단의를 겹옷으로 착용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이 진대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무관과 함께 착용하는 또 다른 복식으로 (給)絳袴가 보인다. 袴는 『釋名』에 "袴는 禪衣의 胡가 없는 것이다. 소매가 좁고 곧아 형태가 도랑(溝)과 같음을 말한다."⁵⁰⁾고 되어 있다. '胡'라는 것은 원래 소의 털의 늘어진 부분을 말하는데 뜻이 확대되어 어떤 물건이건 활모양으로 밑으로 늘어진 형태는 다 '胡'라 하였으니 여기서의 '胡'란 소매가 넓어 팔꿈치 아래로 늘어진 부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⁵¹⁾ 따라서 袴는 禪衣 중에서 소매통이 좁은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錦文衣는 絳紗縠單衣와 함께 鷩冠 착용자의 복식으로 언급되어 있다. 『후한서』에 鷩

冠 착용자의 복식으로 虎文單衣, 虎文袴가 보이며 襄邑에서는 매년 虎文을 織成하여 바쳤다고 하므로⁵²⁾ 여기서의 錦文衣는 虎文 따위를 織成한 錦織物로 만든 포라고 볼 수 있겠다.

이상의 고찰결과에 따르면 진대에는 무관이 조복, 단의, 袴와 함께 착용되었으며 이 중 1~9품 무관 사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착용된 것은 조복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대자묘 주인공의 포는 조복 계열일 가능성이 크다. 모사도를 보면 깃부분에 內衣의 깃이 보이는데 이것은 조복에서 밀받침옷으로 착용되는 단의나 중의의 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에는 포의 색이 홍색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대의 조복 중 阜零辟朝服을 제외하고는 모두 붉은색을 포함하고 있으므로⁵³⁾ (급)오시조복, (급)사시조복, 조복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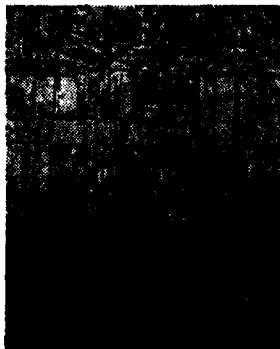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조복제도가 원대자묘 벽화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당시 선비족이 중국식 服制를 도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원대자묘 부장품 가운데에는 선비계 뿐만 아니라 중원지방의 문물도 함께 보이고 있어서 피장자가 선비족이면서 漢族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⁵⁴⁾, 보다 구체적으로 漢化한 鮮卑로서 龍城(지금의 朝陽)에 도읍한 前燕 지배층의 묘로 보기도 하는데⁵⁵⁾ 이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전연은 선비의 諸族 중 가장 먼저 나라를 건설한 씨족으로⁵⁶⁾ 337년 慕容皝이 燕王을 칭하기 시작하여 慕容儁 시대를 거쳐 370년 慕容暉가 前秦에게 멸망당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慕容皝은 341년 龍城(지금의 조양)에 성을 쌓고 종묘와 궁궐을 세워 이곳으로 천도했는데 이는 유목기마민족인 慕容部가 농경권의 생활방식인 정착화를 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⁷⁾ 전연은 본거지였던 요서에서 방목지를 개방하고 유민을 모아 농경지를 조성하는 한편 선비족에게도 농업을 장려하는 시책을 폈는데⁵⁸⁾ 이러한 사실은 "(모용)황이 몸소 군현을 돌며 農桑을 권장하였다"는 『진서』의 기록⁵⁹⁾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전연이 중국식 관료기구를 채택하였으며 모용황과 모용준이 經學을 숭상하고 官學을 세워 귀족 자제들을 교육시켰다는 등의 사실에서 전연이 상당한 정도로 漢化정책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⁶⁰⁾ 따라서 전연

에서 중국식 관료기구의 도입과 함께 중국의 服制를 들여왔을 가능성이 크며, 원대자묘 주인공의 복식은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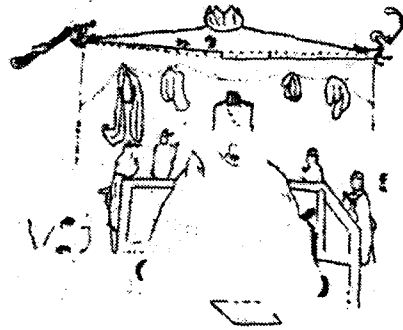
Ⅲ. 고구려 복식과의 관련성

원대자묘 벽화에는 주인공이 단독⁶¹⁾ 정면 坐像으로 표현되어 있다. 묘주좌상의 출현은 자료로 볼 때 前漢代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묘실에 표현으로써 정형화된 것은 後漢代이며⁶²⁾ 위진시기에 있어서도 중요한 畫題로 사용되었다. 이들 벽화에 보이는 묘주상은 夫婦가 마주 앉아 음식을 먹는 등의 생활의 냄새가 농후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많다. 그런데 원대자묘 묘주상은 이와는 달리 휘장이 쳐진 평상 위에 塵尾를 들고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깊은 생각에 빠진 듯한 모습이어서 모종의 엄숙한 느낌을 주고 있다.⁶³⁾(그림1)

이러한 류의 묘주상은 後漢 후기의 安平 遼家莊墓¹⁾(그림6), 서진 말기의 遼陽 上王家村 晋墓⁶⁴⁾(그림7), 동진 太元 11~19년(386-394)으로 추정되는 雲南 昭通 後海子 東晋壁畫墓⁶⁵⁾(그림8)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벽화의 묘주상은 모두 주위에 시종을 거느리고 평상 위에 앉아 있으며 오른손에는 부채나 塵尾를 들고 있다. 녹가장묘 묘주상의 경우



<그림 6> 안평 녹가장묘 묘주상
(『安平東漢壁畫墓』, 도판40)



<그림 7> 상왕가촌묘 묘주상
(『文物』 59년 7기, 61쪽)



<그림 8> 소통 후해자묘 묘주상
(『文物』 63년 12기, 도판1)

뒤가 솟은 검은색 관모를 쓰고 붉은 포를 입고 있는데 원대자묘 묘주상과 관모는 다르지만 포는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상왕가촌묘 벽화는 묘주의 얼굴과 복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소통 후해자묘 묘주상은 보고서에 붉은 입술에 수염이 있고 위는 옅은 흑색, 아래는 황토색인 平頂小冠을 썼으며 暗紅色 道袍式 合衽 長衫을 입고 있다고 되어 있다.⁶⁶⁾ 그런데 소통 후해자묘 묘주의 관모가 위 아래 색이 다르고 윗부분이 옅은 색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책 위에 무관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또 여기에 붉은 포를 입고 있으므로 원대자묘 묘주의 복식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 벽화 가운데 원대자묘 묘주상과 유사한 벽화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⁶⁷⁾

반면 원대자묘와 유사한 묘주상을 고구려 벽화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다.(<표 3> 참조) 특히 안악 3호분의 묘주상은 벽화 위치(서측실)⁶⁸⁾, 벽화 구도

1) 河北省文物研究所 編, 『河北古代墓葬壁畫』, 文物出版社, 2000, 1-2쪽

<표 3> 원대자묘 묘주와 유사한 복식을 착용한 묘주상이 있는 고구려벽화

고분명칭	묘주상 위치	단독 정면 좌상	배경 (휘장·평 상·시중)	鷹尾 소지	얼굴 모습 (가는 눈, 팔자수염 등)	관 모		붉은색 포
						평상책	무 관	
안악3호분	서측실서벽	○	○	○	○	○	○	○
	동쪽회랑	×	×	○	○	○	○	?
태성리1호분	서측실	○	△	○	○	○	○	?
덕흥리고분	전실북벽	○	○	○	○	○	○	△
	현실북벽	○	○	?	○	○	○	○
감신총	전실동감	○	○	×	○	○	○	○
약수리고분	전실동벽	×	×	?	?	○	○	×(흰색)
	현실북벽	×	○	?	?	○	○	×(노랑)
팔청리고분	전실서벽	×	?	?	?	○	○	?
	전실동벽	×	×	?	?	○	○	?
쌍영총	후실북벽	×	△	×	△	○	○	○
수산리고분	현실서벽	×	×	×	○	○	○	×(노랑)

☞ 이 표는 벽화사진, 모사도,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는 해당 항목과 유사하나 확실치는 않은 것, ‘?’는 형태파악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단독정면좌상), 배경(휘장, 평상, 시중), 자세(주미를 들고 책상다리로 앉음), 얼굴 모습(가늘고 긴 눈, 팔자수염, 늘어진 귀), 복식(평상책 위에 투명한 무관 쓰고 붉은 색 포 착용)이라는 모든 측면에서 원대자묘와 유사하며 특히 얼굴 모습과 관모는 거의 똑같다.(그림9)



<그림 9> 안악3호분 묘주상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1, 36쪽)

이러한 두 벽화의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 전연과 고구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구려와 전연 간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나 그러한 와중에도 불모, 상인, 귀화인 등 여러 루트의 인적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모의 경우 전연에 고구려인이 불모로 간 사실이 기록에 보이는데 불모는 왕족이나 상류층의 인사였을 것이므로 양국간에 공식적인 사신왕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고구려가 전연에 있는 불모를 위해 적지 않은 사신이나 사적인 인물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전연의 사회전반을 파악하였을 것이며 사적인 문물교류도 있었을 것이다.⁶⁹⁾ 또한 모용황 시기에 慕容部和 宇文部가 대치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거래는 계속되었던 것⁷⁰⁾에 비추어 볼 때, 고구려와 전연 간에도 상인의 왕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연 내부 간의 갈등으로 전연에서 고구려로 귀화한 인물이 상당수 보이는데 이들을 통해 전연의 문화가 고구려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안악3호분의 주인공으로 생각되는 冬壽 또한 이러한 귀화인으로, 336년에 慕容皝이 慕容仁을 토벌

할 때 慕容仁 휘하에 있다가 고구려로 東走한 것으로 되어 있다.⁷¹⁾ 이러한 사실은 안악3호분 묘주상이 원대자묘와 유사성을 보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전연의 문화에 밝았을 동수집단이 당시 전연에서 유행하던 묘주상을 벽화에 그대로 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⁷²⁾ 따라서 안악3호분의 주인공은 고구려왕이 아니고 동수라고 생각되며 주인공의 관모 또한 白羅冠이 아니라 무관으로 생각된다. 백라관은 왕만이 쓸 수 있고 그 밑의 관리는 신분에 따라 靑羅冠이나 緋羅冠(絳羅冠)을 쓰게 함으로써⁷³⁾ 왕과 신하 사이에 구별을 두고 또 신하간에도 구별을 두었던 점으로 보아, 백라관이 중국에서 1품~9품까지 통용되던 武冠과 동일한 형태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 <표 3>에 보이듯이 안악3호분의 묘주상이 태성리 고분⁷⁴⁾, 덕흥리고분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감신총, 약수리고분, 팔청리고분, 쌍영총, 수산리고분에 있어서도 다소의 변형은 가해졌으나 상당부분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안악3호분이 4~5세기 평양지역 고분벽화에 미친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벽화에서 묘주상의 위치가 우측실 우벽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묘주 단독좌상 대신 행렬도, 출행도, 夫婦竝坐像이 출현하는 등 고구려 나름대로의 변형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식만은 '평상책+무관+포'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들 묘주상의 복식이 중국벽화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고구려에서 실제 착용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앞에서 원대자묘 주인공의 복식이 조복 차림일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삼국지』 기록을 보면 중국의 조복제도가 漢代에 이미 고구려에 들어왔다는 것을⁷⁵⁾ 알 수 있어서 이러한 추정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한편 원대자묘 벽화는 묘주상 뿐만 아니라 기타 도상에 보이는 모든 복식이 고구려 복식과 매우 유사하다. 남자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묘주를 제외한 모든 인물이 巾이나 幘을 쓰고 襦와 袴를 입고 있다. 巾은 검은 천으로 머리를 감싸 뒤에서 묶은 형태이다.(그림10-①)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을 쓰고 있는데 착용자는 시종, 牛耕人, 도살자, 마부 등의 낮은 계층 인물이 대부분이지만 수렵도 및

夫婦圖에서는 묘주로 추정되는 인물도 건을 쓰고 있다. 고구려 벽화의 건과 비교해 볼 때 형태, 착용자, 착용 의복(襦袴)이 거의 유사하다.⁷⁶⁾(그림10-②) 그런데 고구려의 건은 평양·안악지역 뿐만 아니라 무용총, 장천 1호분과 같은 집안지역 고분에서도 보이고 있어서 원대자묘가 집안지역 고분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劉萱堂은 원대자묘와 무용총 벽화가 사신도, 三足鳥가 든 태양, 수렵도에서 유사성이 보이고 牛車圖의 경우 시동의 복식까지도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⁷⁷⁾



<그림 10-①> 원대자묘 봉식도 巾,襦,袴 (『文物』 84년 6기, 도판6-2)



<그림 10-②> 덕흥리고분 巾,襦,袴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1, 169쪽)

幘의 경우 奉食圖의 선두 인물이 유일하게 착용하고 있는데 앞보다 뒤가 높고 뒷부분이 두 갈래로 나뉘지지 않은 평상책 형태이다.(그림11-①) 뒤

따르는 6명은 그릇류를 들고 있는데 반해 이 사람만 환두대도를 들고 있는 점으로 보아 무관 계통으로 보인다. 안악3호분 등의 고구려 벽화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책을 볼 수 있는데 착용자가 주로 무관 계통이며 襦袴 차림이라는 점에서 서로 일치한다. (그림11-②)



<그림 11-①> 원대자묘 봉식도 幘,襦,袴
(『文物』 84년 6기,도판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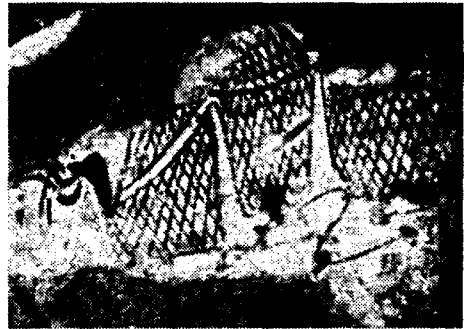


<그림 11-②> 안악3호분 幘,襦,袴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1,42쪽)

유와 고의 경우 襦는 것이 마치 V-Neckline의 관두의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직령교임형일 것으로 생각되며 엉덩이 정도의 길이에 소매통이 비교적 좁고 깃, 도련, 수구에 선을 들렸다. 허리에는 帶를 맺다. 帶를 뒤로 길게 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 등의 襦와 거의 동일한 형태이다.(그림10-①,②/11-①,②) 특히 V-Neckline식의 깃 표현법이 공통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袴는 바지통이 그다지 넓지 않고 부리 쪽으로 갈수록 오므라

지는 형태이다.(그림10-①) 고구려 벽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진서』에서 동진 太興年間(318-321)의 제도를 보면 상의의 길이가 짧고 帶는 겨드랑이에 닿으며, 袴는 부리를 좁히지 않고 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⁷⁸⁾고 하였으니 원대자묘 벽화에 보이는 襦袴는 동진의 제도가 아니라 선비족의 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甲士騎馬圖 무사의 갑옷과 馬甲에는 마름모형 빗금이 보이는데 이는 札甲을 묘사한 것이라기 보다는 누비갑옷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⁷⁹⁾(그림12-①)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갑옷은 대개가 찰갑이지만 덕흥리고분, 감신총, 약수리고분 갑옷 중에 마름모꼴 빗금이 보인다.⁸⁰⁾(그림12-②)



<그림 12-①> 원대자묘 감사기마도 갑옷
(『文物』 84년 6기,42쪽)



<그림 12-②> 감신총 갑옷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1,77쪽)

한편 원대자묘 벽화에서 여자복식은 대개 머리부분만 식별이 가능한데 묘주도, 시녀도, 주방도의 시녀들은 모두 복잡한 형태의 高髻를 하고 있다.(그

림13-①) 이와 유사한 머리모양을 안악3호분 및 덕흥리고분의 시너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13-②)



<그림 13-①> 원대자묘 주방도 시너 머리
(『文物』 84년 6기, 41쪽)



<그림 13-②> 안악3호분 시너 머리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1, 40쪽)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대자묘 벽화복식은 4~5세기의 고구려 벽화복식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안악3호분을 중심으로 하는 평양·안악지역 벽화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데 이는 동수 집단에 의해 도입된 전연의 벽화 문화가 이들 고분에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의 고찰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대자묘 주인공 복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대까지의 문헌자료와 고고학적 자료를 고찰한 결과, 평상책 위에 무관을 쓰고 조복의 일종인 포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인공의 신분은 1~9품 사이의 武官으로 생각한다. 무관과 조복을 함께 착용하는 것은 漢族의 服制로 이러한 차림이 원대자묘에서 확인되는 것은 전연이 漢化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식 관료제도 뿐만 아니라 服制까지도 도입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둘째, 원대자묘 주인공의 복식과 고구려 벽화 복식을 비교한 결과, 원대자묘 주인공의 복식은 4~5세기 평양·안악지역 고구려 벽화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안악 3호분 묘주상과는 복식 뿐만 아니라 벽화 위치, 벽화 구도, 배경, 자세, 얼굴 모습까지도 거의 흡사한데, 이는 안악3호분의 주인공인 동수가 전연의 문화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평상책+무관+포'의 구조가 4~5세기 평양·안악지역 벽화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에도 중국의 조복제도가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원대자묘 벽화복식은 주인공의 복식 뿐만 아니라 기타 인물들의 복식이 모두 고구려 복식과 관련을 보이고 있는데 巾, 幘, 襦, 袴, 갑옷, 여자 머리모양에 있어 형태 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성격까지도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주인공의 복식, 책, 여자의 머리모양은 漢制를 수용한 결과로 보이지만 漢族의 복식과 다른 형태의 巾, 襦袴 차림이 두 지역 벽화에 공통되는 것은 고구려 문화가 선비 등의 기마민족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을 실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대자묘 만을 대상으로 고구려 복식과의 관련성을 고찰했다. 그러나 원대자묘 외에도 고구려 인물풍속도 고분과 시기적으로 가까운 위진시대의 고고학적 자료 가운데에는 고구려 복식과 유사한 것이 상당수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 복식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하고 복식문화교류의 양상 및 전파경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고고학적 자료들과의 총체적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문헌

- 1) 遼寧省博物館文物隊·朝陽地區博物館文物隊·朝陽縣文化館, “朝陽袁台子東晉壁畫墓”, 『文物』, 1984년 제6기, 29쪽
- 2) 고분의 연대에 관해 보고서에서는 4세기 초~4세기 중

- 업으로 추정하였으나 학자에 따라서는 4세기 중엽~4세기 말엽으로 보기도 한다. 연대에 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정리해 놓은 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李熙濬, "경주 황남대총의 연대", 『영남고고학』 제 17집, 영남고고학회, 1995, 46쪽
- 3) 원대자료에 보이는 선비계 부장품으로는 동물의 뼈와 馬具를 들 수 있다.
- 永島暉臣慎, "高句麗古墳の流れと影響", 岸俊男(編), 『日本の古代 6-王權をめぐる戦い-』, 中央公論社, 1986, 312-313쪽
 - 千賀久, "高句麗の馬具と馬裝", 『考古學と移住・移動』, 同志社大學考古學刊行會, 1985, 105-107쪽
- 4) 벽화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논문 참조
- 遼寧省博物館文物隊·朝陽地區博物館文物隊·朝陽縣文化館, 앞논문, 29-45쪽
 - 劉中澄, "關於朝陽袁台子晉墓壁畫的初步研究", 『遼海文物學刊』, 1987년 제1기, 1987, 95-101쪽
- 5) 고구려 벽화와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永島暉臣慎, 앞논문, 315-316쪽
 - 劉中澄, 앞논문, 101쪽
 - 劉董堂, "中國集安高句麗壁畫與遼東遼西漢魏晉壁畫比較研究", 『高句麗古墳壁畫』(『高句麗研究』4집), 고구려연구회, 1997년, 143쪽
- 6) 孔錫龜, "安岳3號墳 主人公의 冠帽에 대하여", 『高句麗研究』5집, 고구려연구회, 1998
- 7) 遼寧省博物館文物隊·朝陽地區博物館文物隊·朝陽縣文化館, 앞논문, 40쪽
- 8) 바로 앞논문, 40쪽
- 9) 25史 가운데 晋代의 복식사실을 알려주는 사서로는 『진서』뿐만 아니라 『송서』를 들 수 있다. 『송서』는 宋(420-479)의 역사서이기는 하지만 禮志에 기록된 복식관련기사가 당시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小林聰은 『송서』 예지의 印綬官服規定의 사료적 연원을 검토하여 이 부분의 서술체계가 기본규정과 그 후의 연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규정은 서진시대의 泰始年間(265-274)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고 그 후의 연혁은 동진 이래 송까지의 개혁사항을 기록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小林聰, "六朝時代の印綬官服規定に關する基礎的考察-『宋書』禮志にみえる規定を中心にして-『史淵』 130輯, 1993년 3월, 九州大學文學部, 81-86쪽, 115쪽) 따라서 『송서』 예지의 복식관련기록의 상당부분은 진대의 제도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원대자료 축조시기와 부합되는 진대의 기록으로 『진서』와 더불어 『송서』 예지의 기록도 함께 다루었다.
- 10) 『漢書』 권63, 武五子傳 33: 惠文冠
『後漢書』 권1, 光武帝紀 1上: 大冠

- 志 30, 輿服下: 武弁大冠, 繁冠
- 『晉書』 권25 志 15, 輿服: 武弁, 大冠, 繁冠, 建冠, 籠冠, 古之惠文冠
- 『宋書』 권18, 志 8, 禮5: 昔惠文冠, 大冠, 武弁冠
- 11) 『후한서』 여복지에 따르면 "무관은 무변대관이라고도 하는데 諸 武官이 이것을 쓴다. 시중과 중상시는 黃金璫을 가하고 美(날개)를 붙여 문양을 삼으며 貂尾로 장식을 삼는데 이것을 '趙惠文冠'이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惠문관은 엄밀히 말하면 무관과 동일한 관모가 아니라 무관 위에 金璫, 蟬, 貂尾 등을 장식한 관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서』 武五子傳의 惠문관에 대한 주석을 보면 服虔의 말을 인용하여 惠문관을 무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복건은 후한 사람이므로 후한대에 이미 惠문관이 무관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서』, 『송서』, 『수서』에 모두 무관을 '옛날의 惠문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진대 이후로는 惠문관과 무관의 명칭상의 구별이 확실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당시에는 惠문관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무관으로 통칭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송서』 禮志에 시중, 산기상시, 중상시의 관모로 '惠문관'이라는 용어 대신 '武冠 貂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惠문관은 원래 조선 장식을 한 무관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후한의 어느 시점부터 무관의 의미로도 혼용되기 시작하여 진대 이후로는 무관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경향은 『魏書』에서도 확인되는데 무관 좌우에 鷩尾를 장식한 관을 『후한서』와 『진서』에서는 '鷩冠'이라고 기록한 반면, 『송서』에서는 '武冠 鷩尾'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鷩冠이라는 명칭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 12) 『晉書』 卷25, 志 15, 輿服 "武冠...即古之惠文冠 或曰趙惠文王所造 因以爲名 亦云 惠者總也 其冠文輕細如蟬翼 故名惠文"
- 13) 孫機, "進賢冠與武弁大冠", 『中國古輿服論叢』, 文物出版社, 1993, 133쪽
- 14) 손기에 따르면 漆纒紗弁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바로 앞논문, 133쪽)
- 15) 보고서에 따르면 62호묘는 왕망 시기의 묘로 남자 시신의 머리에 漆纒冠이 씌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積이 받쳐져 있었다고 한다. 보고서 12쪽에 복원도를 제시하고 있다. (甘肅省博物館, "武威磨咀子三座漢墓發掘簡報", 『文物』 1972년 제12기, 9쪽, 11-12쪽)
- 16) 전한시대 무관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長沙 馬王堆 3호 西漢墓 출토 漆紗冠(孫機, 앞논문, 133쪽)
 - 洛陽 燒溝61호 漢墓 벽화(연대는 전한 후기인 B.C.48-B.C.7로 추정됨)의 창을 든 인물(洛陽市第二文

- 物工作隊·黃明蘭·郭引強 編著, 『洛陽漢墓壁畫』, 文物出版社, 1996, 그림Ⅲ-12)
- 洛陽 八里台 漢墓 벽화(전한 말기) 武士(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中國美術全集』 繪畫編 12 墓室壁畫, 文物出版社, 1989, 그림5)
- 17) 『後漢書』 志제30, 輿服下 “獨斷曰‘幘...冠進賢者宜長耳 冠惠文者宜短耳’”
- 18) 『後漢書』 志제6, 禮儀 下, 大喪 “武吏 布幘大冠”
- 19) 燒溝61호 벽화와 八里台 벽화(주16 참조)
- 20) 기남화상석에 보면 무관 밑에 책을 착용하지 않고 무관 위에 띠를 두른 모습이 보인다.(林巴奈夫, 『漢代の文物』,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昭和51년, 그림 2-86, 2-87) 따라서 漢代에는 무관을 책과 반드시 병용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21) 『晉書』 권25, 志제15, 輿服, 『宋書』 권18, 志제8, 禮5 “幘者...漢注曰‘冠進賢者宜長耳 今介幘也 冠惠文者 宜短耳 今平上幘也’”
- 22) 『晉書』 卷25, 志제15, 輿服, 『宋書』 卷18, 志제8, 禮5 “天子...其雜服...平上幘 武冠”
- 『晉書』 권24, 志제14, 職官 “大司馬 大將軍 太尉 驃騎 車騎 衛將軍 諸大將軍 開府位從公者爲武官公 皆著武冠 平上黑幘”, “三品將軍秩中二千石者 著武冠 平上黑幘 五時朝服 佩水蒼玉
- 23) 『宋書』 권19, 志제9, 樂1 “於是尙書又奏‘...則武始舞者 武冠 赤介幘 生絳袍單衣 絳領袖 阜領袖中衣 虎文畫合幅袴 白布絺 黑韋鞮...’”
- 24) 孫機, 『漢代物質文化資料圖說』, 文物出版社, 1991, 234쪽
- 25) 『진서』 職官 志에는 大司馬 이하 여러 무관의 복식으로 무관과 평상복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후한서』 여복지에는 『晉公卿禮秩』을 인용하여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평상복책’ 대신 ‘평상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평상복책과 평상책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晉書』 권24, 志제14, 職官 “大司馬 大將軍 太尉 驃騎 車騎 衛將軍 諸大將軍 開府位從公者爲武官公 皆著武冠 平上黑幘”
- 『後漢書』 志제30, 輿服下 “晉公卿禮秩曰‘大司馬 將軍 尉 驃騎 車騎 衛軍 諸大將軍開府從公者 著武冠 平上幘’”
- 26) 『宋書』 권18, 志제8, 禮5 “宋乘輿鼓吹 黑幘武冠”
- 27) 『송서』 예지에는 각 官爵 보유자가 착용할 수 있는 관복이 일일이 나열되어 있다. 小林聰은 이들의 관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무관 착용자의 관품은 1~9 품에 걸쳐 있다.(小林聰(1993), 앞논문, 95-99쪽)
- 28) 漢代 초기에는 侍中, 中常侍와 같은 관직을 士인이 담당하기도 했으나 후한 光武帝 이후에는 宦官이 이를專任했다고 한다.(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1983, 80쪽)
- 29) 小林聰, “晉南朝における官服制度の變遷と官爵體系- 『隋書』禮儀志の規定を素材として”, 『東洋學報』, 제77권 제3·4호, 財團法人 東洋文庫, 1996년 3월, 264쪽
- 30) 『宋書』 권18, 禮5 ‘給事中 黃門侍郎 散騎侍郎 太子中庶子 庶子 給五時朝服 武冠’, “小黃門 給四時朝服 武冠”
- 31) 昌邑왕의 경우 『한서』에 해문관을 착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해문관이 무관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후한시대부터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한시기(BC 62년)에 해당하는 이 기록에서의 해문관은 초선 장식을 한 무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후한서』 흉노선우 기사의 경우 초선 장식을 한 무관을 해문관이라 한다는 기록 뒤에 이 기사가 나오므로 여기서의 해문관은 초선장식을 한 무관으로 볼 수 있다.
- 32) 孔錫龜, 앞논문, 174-180쪽
- 33) 주10) 참조
- 34) 遼寧省博物館文物隊·朝陽地區博物館文物隊·朝陽縣文化館, 앞논문, 40쪽
- 35)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漢 武梁祠 畫像石 중의 水陸攻戰圖에 보이는 말 탄 무사(李天鳴, 『中國疆域的變遷』 上冊, 國立故宮博物院, 中華民國 86년, 52쪽)
 - 嘉峪關 魏晉墓 磚畫 중의 활 쏘는 무사(周錫保, 앞책, 148쪽)
 - 遼陽 棒台子屯壁畫중의 칼과 방패를 든 門卒(李文信, “遼陽發現的三座壁墓”, 『文物參考資料』, 1955년 제5기, 16쪽)
- 36) 『漢書』 권63, 武五子傳 제33 “察故王衣服言語跪起 清狂不惠”
- 37) 『후한서』 여복지에 旒冕, 長冠, 委貌冠, 皮弁, 爵弁, 建華冠, 方山冠, 巧士冠만이 祭服用이고 나머지는 모두 朝服用이라고 되어 있어 무관은 조복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8) 小林聰(1996), 앞논문, 10-12쪽
- 39) 小林聰은 『송서』의 이러한 규정을 서진시대 泰始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논문 주9) 참조)
- 40) 주41)를 보면 ‘阜緣中單衣領袖各一領’이라 기록되어 있어 中單衣가 하나의 옷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이 기사 뒷부분에 나오는 조정에서 지급하는 구체적인 조복의 내역을 살펴보면 單衣와 中衣가 따로 기록되어 있어 별개의 복식임을 알 수 있다.(“諸受朝服 單衣七丈二尺...中衣絹五丈...”) 이렇게 조복으로 포, 단의, 중의를 겹쳐입는 방식은 이미 후한대부터 보이는데 『후한서』 여복지에서 通天冠을 설명하면서 조복 일습으로 袍, 單衣, 阜緣領袖中衣를 제시하

- 고 있다. (“今下至賤更小史 皆通制袍 單衣 皁緣領袖 中衣 爲朝服云”)
- 41) 『宋書』 권18, 志제8, 禮5 “朝服一具 冠幘各一 絳絳袍 皁緣中單衣領袖各一領 革帶袷袴各一 烏袜各一量 簪導餉自副 四時朝服者 加絳絹黃絳青絳皁絳袍單衣各一領 五時朝服者 加給白絹袍單衣一領”
 - 42) <표 2> 및 小林聰(1993), 앞논문, 105-106쪽 참조
 - 43) 주40) 참조
 - 44)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中華大典編印會, 中華民國 56년, 80-81쪽
 - 45) 『說文』 “禪衣不重也”
『釋名』 卷5 釋衣服 第16 “禪衣 言無裏也”
『急就篇』 卷2 顏師古注 “禪衣 似深衣而褻大 亦以其無裏 故呼爲禪衣”
 - 46) 『宋書』 권18, 志제8, 禮5 “單衣 古之深衣也 今單衣裁製與深衣同 唯絹帶爲異”
 - 47) 주45) 참조
 - 48) 王宇清, 앞책, 81쪽
 - 49) 『後漢書』 志제30, 輿服 下 “武冠...加雙鷗尾 豎左右爲鷗冠云 五官 左右虎賁 羽林 五中郎將 羽林左右監 皆冠鷗冠 紗縠單衣 虎賁將 虎文袴 白虎文劔佩刀 虎賁武騎 皆鷗冠 虎文單衣 襄邑歲獻織成虎文云”
 - 50) 『釋名』 卷5 釋衣服 第16 “禱 禪衣之無胡者也 言袖夾直 形如溝也”
 - 51) 孫機(1991), 앞책, 238쪽
 - 52) 주49) 참조
 - 53)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복의袍는 絳絳袍이고 사시조복과 오시조복은 여기에 다른 색의袍가 추가되어 있다.
 - 54) 원대자료에서 출토된 帶金具는 緣金부분은 晉代의 龍紋透彫帶金具와 동일하지만 내부의 雙龍紋은 遼寧省 北票縣 房身2호묘 출토 步搖插金製方形板的 透彫문양과 유사하여 원대자료의 피장자가 선비족이면서도 漢族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千賀久, 앞논문, 107쪽)
 - 55) 穴澤口禾光, “東と西の民族移動時代-東晉(五胡)十六國の考古學-”, 『東方』 No.45(1984), 16쪽
-----, “五胡十六國考の考古學(上)”, 『古代學評論』, 창간호(1988), 86쪽
(李熙濤, 앞논문, 46쪽에서 재인용)
 - 56) 池培善, 『中世東北亞史研究-慕容王國史-』, 일조각, 1997, 20쪽
 - 57) 池培善, 앞책, 78-79쪽
 - 58) 中國史研究室 編譯, 『中國歷史』 상권, 신서원, 1994, 311쪽
 - 59) 『晉書』 권109, 載記 제9 “號躬巡郡縣 勸課農桑”
 - 60) 池培善, 앞책, 74-161쪽
 - 61) 여기서 ‘단독’이라는 용어는 부부가 함께 표현된 것이 아니라 묘주만 그랬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 62) 東潮,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1997, 316쪽
 - 63) 劉中澄, 앞논문, 96쪽
 - 64) 李慶髮, “遼陽上王家村晉代壁畫墓清理簡報”, 『文物』, 1959년 제7기, 60-62쪽
 - 65) 雲南省文物工作隊, “雲南省昭通後海子東晉壁畫墓清理簡報”, 『文物』, 1963년 제12기, 1-5쪽
 - 66) 바로 앞논문, 2쪽
 - 67) 묘주단독상이 아니고 부부가 함께 그려져 있는 것 중에 복연시대 선비 귀족의 묘로 추정되는 北廟村 1호 묘의 묘주상은 가늘고 긴 눈, 팔자수염, 늘어진 귀 등의 묘모가 원대자료 묘주와 유사하고 관모가 높은 상자형으로 보여 무관으로 생각된다.(朝陽地區博物館·朝陽縣文化館, “遼寧朝陽發現北燕北魏墓”, 『考古』, 1985년 제10기, 921-923쪽)
 - 68) 遼河 유역 벽화묘에서 묘주상은 서측실(우측실)에 표현된 경우가 많다. 서측실이 중요시되는 것은 종묘 등에서 서벽의 감에 신주를 모시는 것에 유래한다고 한다.(東潮, 앞책, 313쪽)
 - 69) 池培善, 앞책, 205쪽
 - 70) 바로 앞책, 87쪽
 - 71) 『資治通鑑』 권95, 晉紀17 咸康 2년 正月條(바로 앞책, 88쪽 참조)
 - 72) 漢代 畫象磚에 있어 서로 다른 묘에서 발견된 화상전의 화면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들 화상전이 동일한 틀을 사용해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河浩天 著·成元慶 抄譯, “漢畫와 漢代의 社會生活”, 『古文化』 제14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76, 14쪽)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원대자료와 안악 3호분의 묘주상이 높은 근사성을 보이는 것은 당시 중국에 묘주상의 전형이라 할 만한 것이 정형화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고구려에도 전해져 안악3호분 축조시 이를 근거로 묘주상을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73) 『舊唐書』 권199上 列傳 제149上 “衣裳服飾 唯王五綵以白羅爲冠...官之貴者 則青羅爲冠 次以絳羅”
『新唐書』 권220, 列傳 제145 “王服五采 以白羅製冠...大臣青羅冠 次絳羅 ”
 - 74) 태성리고분 묘주상의 경우 현재 남아 있는 모사도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보고서에는 벽화구도, 배경, 자세, 얼굴모습, 복식이 안악3호분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적발굴보고』 ⑤ 태성리 고분군 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1959, 98쪽)
 - 75) 『三國志』 권30, 魏書30, “漢時賜鼓吹技人 常從玄菟郡 受朝服衣幘”
 - 76) 정완진, “高句麗 冠帽考”,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25-26쪽
 - 77) 劉董堂, 앞논문, 143쪽
 - 78) 『晉書』 권27, 志제17, 五行上 “元帝太興中...是時爲衣

者又上短 帶纒至于掖... 爲袴者直幅爲口 無殺 下大之象”

위논문, 1997, 77-78쪽

79) 박가영, “古代 韓國 甲冑의 類型”, 서울대학교 석사학

80) 바로 앞논문, 92쪽 〈표13〉 참조